조달청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0.(화)

조달청, 평가위원 사진 유출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 총력
“사진만 유출… 다른 개인 정보 유출 없어”

- 온라인 평가위원 189명 본인 확인용 사진 외 다른 개인정보 유출 없어
-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없어... 관계기관 신고 및 피해사실 통지 완료
- 생성형 AI서비스社에 사진 삭제 요청... 외부 AI 정보 무단 전송 차단 등 보안체계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AI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위원 사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와 관계기관 신고, 피해사실 통지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유출된 사진 외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내부 직원 1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평가위원의 본인 확인용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출 대상은 온라인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89명으로, 유출 항목은 본인 확인 및 평가 공정성 증빙용 사진에 한정된다. 사진에는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금융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사진유출 사실을 최종확인한 11월 6일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출 사실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평가위원 전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담 대응팀(TF)을 구성해 유출 사실 및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생성형 AI서비스社 에 해당 사진의 삭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조달청은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 생성형 AI로의 개인정보 무단 전송 차단, 전 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 AI 활용 전반의 보안체계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평가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구제와 후속 조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정보 보호와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 등 접수 담당부서 : 디지털조달총괄과
- 피해 등 접수 전화번호 : 042-724-7549(개인정보 담당자)
- 피해 등 접수 e-메일주소 : songjungwook@korea.kr

담당 부서	디지털공정조달국 디지털조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방형준	(042-724-7139)
		담당자	주무관	김훈희	(042-724-71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